한국불교중흥을 발원하며 위례천막결사에 나서는 9명 스님들이 정진할 상월선원 전경. 결사 입제를 앞두고 상월선원 설치 작업이 한창이다. 봉은사 제공

“상월선원이 곧 사관…염화미소 이치 깨닫기를”

〈死關〉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위례천막결사 대중 위해 직접 작시

선은 ‘적당히’ 넘어선 결연함 필요

생사 건 정진 그 자체가 뜻깊은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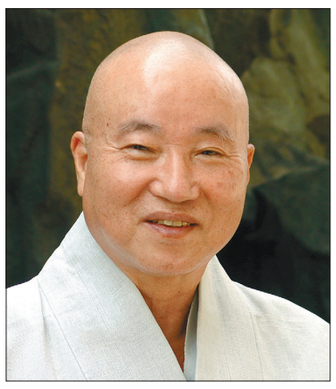
한국불교 거듭나는 새로운 전기되

曹溪禪風何處覓(조계선풍하처멱)
霜林獨座透祖關(상림독좌투조관)
月燭雲券照大千(월촉운권조대천)
拈花微笑卽次在(염화미소즉차재)

조계선풍 어디서 찾으랴./ 서릿발 속 오롯이 앉아 조사관을 뚫어라./ 달빛 구름 걷히고 대천세계 빛나니/ 염화미소가 바로 이 자리리라.

10월13일 새벽이었다.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앉았다. 눈을 지그시 감고 허리는 꼿꼿이 세웠다. 일순간 의식이 명경(明鏡)처럼 투명해지더니 돌연 시구들이 하나둘 선명히 떠올랐다. 스님은 그 시구를 한 글자 한 글자 종이에 옮겨 적었다. 자신이 시를 지었다기보다 저절로 지어졌다는 말이 더 적합할 듯싶었다.

법산 스님은 9명 스님들이 위례 상월선원에서 동안거 천막결사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 전해 들었다. 그런데 여느 안거와는 확연히 달랐다. 결사 기간 내내 말 한 마디 않는 것은 물론 하루 14시간 정진한다고 했다. 공양도 하루 한 끼, 옷도 한 벌, 양치만 허용하고 삭발과 목욕까지 금했다. 게다가 규약을 어기면 조계종 승적에서 제외한다는 각서와 제적원까지 제출한다고 했다. 여간한 결심이 아니라면 며칠도 견디기 어려운 그야말로 생사를 내건 정진이었다.



“일각에서 고행이니 극단이니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건 선을 잘 모르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적절히’ ‘적당히’는 세간에서나 통용되는 말일 뿐입니다. 선은 ‘적당히’로 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백척간두의 절벽에서 한 걸음 더 내디디겠다는 죽을 각오가 없으면 결코 번뇌망상을 조복 받을 수 없습니다. 선재동자가 구법을 위해 불속에 뛰어들었던 것이나 옛 선사들이 수마를 물리치려 턱 밑에 송곳을 세웠던 것도 모두 진리에 대한 간절함에서 비롯된 행위였습니다. 위례천막결사에 동참하는 스님들이 찬탄과 격려를 받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산 스님은 1985년 대만에서 선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동국대 선학과 교수로 25년을 재직한 한국 선학의 권위자다. 동시에 스님은 ‘이뭣고’ 화두를 늘 챙기는 참선수행자이기도 하다. 정년퇴임을 4년 앞둔 2006년 여름, 스님은 방학을 이용해 지리산 벽송사에서 가부좌를 틀었다. 1970년대 은사인 경봉 스님 밑에서 참선수행을 했지만 교수로 재직하면서 안거에 들기는 이때가 처음이었다. 불교와 선어록에 밝다고 해서 수행과 깨침이 저절로 이뤄지지 않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스님이다. 그렇기에 ‘수행이 없는 학문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고 수행이 뒤따르는 학문은 모래를 녹여 반도체를 만드는 것과 같다’는 오랜 신념을 마침내 실천에 옮긴 것이다.

이후 스님은 늦깎이 수좌로 안거 때마다 선방에 방부를 들였다. 세수로 환갑을 훌쩍 넘겼지만 누구보다 올곧게 정진하려 했고 사찰에서 필요로 하는 울력에도 꼬박꼬박 참여했다. 그렇듯 비장한 각오로 정진했던 스님이기에 혹독한 겨울날 허허벌판에서 진행될 위례천막결사의 결연함이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다.

“말 있는 곳에서 말 없는 곳으로 가는 게 교학이라면 말 없는 곳에서 말 없는 자성을 깨닫는 것이 선입니다. 위례천막결사 현장은 가장 치열한 수행의 공간으로 그곳이 바로 무문관입니다. 무문관은 다른 말로 사관(死關)이라고 합니다. 죽으러 가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임제 선사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했지만 그에 앞서 자신부터 죽여야 합니다. 빗장을 걸어 잠그고 여기서 죽겠노라고 정진하면 번뇌망상의 ‘나’는 죽고 자성청정심의 ‘나’가 살아납니다. 살아날 길 없는 막다른 곳에서 살길이 생긴다는 절처봉생(絕處逢生)의 이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법산 스님은 결사 대중들이 한국불교의 중흥을 발원하며 생사를 걸고 정진을 한다는 그 자체로서 뜻깊고 숭고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그분들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외호하는 대중들과 함께 정진하는 불자들의 정성도 기억돼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아홉 분 스님 모두가 상월선원이라는 사관에서 염화미소(拈花微笑)의 깨달음과 불꽃에서 연꽃을 피우는 화중생련(火中生蓮)의 이치를 증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원력과 수행력으로 신뢰받는 불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불교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발원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위례천막결사 고불문

한 자루의 향을 사르고, 삼가 부처님 전에 고합니다.

당신께서는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법륜을 굴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 하나는 욕망의 길이요, 하나는 혐오의 길이다. 고통의 나락으로 이끄는 이 두 갈래 길을 떠나 그 가운데 길을 걸어라. 이 길을 걸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늘어나고,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고, 고요하고 평화로워지며, 모든 고통이 소멸할 것이다.”

저희들은 이제 당신의 길을 걷겠노라고 다짐합니다.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이 필요한 곳, 당신의 가르침이 구현되어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당신이 고행을 버리고 은둔자들의 숲을 떠나 마을 가까운 숲으로 찾아가셨듯이, 저희도 이제 위례신도시의 황량한 뜨락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에겐 이곳이 붓다가야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 당신이 품이 넓고 그늘이 풍성한 나무 한 그루로 깨달음을 이룰 자리로 삼으셨듯이 저희도 이제 널찍한 천막 한 채로 깃들 자리를 삼았습니다. 저희에겐 이 천막이 보리수가 될 것입니다. 서릿발 같은 기상에 달을 벗 삼을 마음만 갖춘다면 당신의 길에서 어찌 물러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수행처에 상월선원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던 날, 저희라고 어찌 당신의 가르침에 생명을 바치겠노라 맹세하지 않았겠습니까. 고작 한 그릇이면 족할 음식에 흔들리고, 고작 한 벌이면 족할 옷에서 감촉을 탐하고, 고작 한 평이면 족한 잠자리에서 편안함을 구한 탓에 초발심이 흐려졌다 생각하니,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청규를 정하였습니다.

첫째,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한다.
둘째, 공양은 하루 한 끼만 먹는다.
셋째, 옷은 한 벌만 허용한다.
넷째, 양치만 허용하고 삭발과 목욕은 금한다.
다섯째, 외부인과 접촉을 금하고, 천막을 벗어나지 않는다.
여섯째, 묵언한다.
일곱째, “규약을 어길 시 조계종 승적에서 제외한다.”는 각서와 제적원을 제출한다.

그리고 당신이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에 들면서 맹세하셨듯이 저희도 당신을 따라 맹세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내 몸은 말라버려도 좋다.
가죽과 뼈와 살이 녹아버려도 좋다.
어느 세상에서도 얻기 어려운 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
저희의 맹세가 헛되지 않다면, 이곳이 한국의 붓다가야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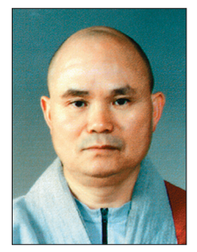
비구 자승, 무연, 성곡, 진각, 호산, 심우, 재현, 도림, 인산 삼가 올립니다.

정묵 스님, 다리 회복 더뎌 결국 불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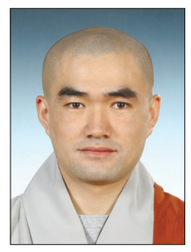
대중들에 최종 의사 전달

“결사대중 원만회향 기원”

인산 스님, 추가로 합류



정묵 스님



인산 스님

위례천막결사를 진행하기로 했던 상월선원 선덕 정묵 스님이 다친 다리의 재활이 길어져 결국 천막결사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월선원 대중들은 정묵 스님을 대신해 서울 수국사 대중 인산 스님을 위례천막결사에 동참시키기로 결정했다.

정묵 스님은 지난 8월경 안동 봉정사 인근에서 등산을 하다 바위에서 미끄러져 다리 등 2곳이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두 달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오다 최근 퇴원했다. 그러나 골절된 부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재활치료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구나 다친 부위에 찬바람이 닿을 경우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난방시설이 전혀 없는 상월선원에서 위례천막결사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때문에 정묵 스님은 자신으로 인해 대중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면서 부득이 불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묵 스님은 위례천막결사 소식을 접하고 강한 의욕을 보여 왔다. 특히 위례천막결사가 진행되는 천막법당의 이름을 ‘상월선원(霜月禪院)’이라 지은 것도 스님이었다. ‘서리를 맞고 달을 벗 삼아 치열하게 정진’하면서 한국불교 중흥을 이뤄보자는 취지였다. 그랬기에 정묵 스님의 아쉬움은 클 수밖에 없다.

정묵 스님은 “선원에서 함께 정진했던 대중들이 위례천막결사를 제안해 개인적으로는 큰 공부가 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다친 다리 때문에 참석할 수 없게 돼 무척 아쉽다”면서 “나로 인해 다른 대중스님들이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나는 비록 동참할 수 없지만, 대중들이 무사히 결사를 회향하고 발원을 성취하길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묵 스님의 불참으로 생긴 빈자리는 위례천막결사에 강한 원력을 냈던 수국사 대중 인산 스님이 대신하기로 했다. 인산 스님은 2006년 송광사로 출가해 송광사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으며, 불교대학원을 수료했다.

지난해 봉화 각화사 선원에서 첫 하안거를 시작한 이후 동안거와 올해 하안거를 지냈다. 인산 스님은 위례천막결사 소식을 접하고 동참하겠다는 원력을 세웠지만, 동참 대중들이 많아 참여할 수 없었다.

인산 스님은 “어렵게 위례천막결사에 동참하게 된 만큼 어른스님들을 따라 치열하게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결사대중 원력 성취되도록 만전”

위례천막결사 외호담당 혜일스님

매일 도시락으로 대중공양

신도와 함께 기도법회 진행

위례천막결사 결제일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성남 봉국사 주지 혜일 스님〈사진〉의 발걸음이 부산하다. 결사 대중들이 머무를 천막법당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일반 대중들이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일까지 일일이 챙기려면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

스님은 위례천막결사 소식을 접하고 외호 담당을 자처했다. 선배스님과 도반·후배스님들이 한국불교중흥을 발원하며 결사에 나선 만큼 이 스님들의 원력이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스님의 역할이라고 여겼다. 위례천막결사가 진행되는 상월선원이 성남 봉국사와 인접한 곳이라는 점에서 애초부터 ‘상월선원은 봉국사가 운영하는 선원’이라고 마음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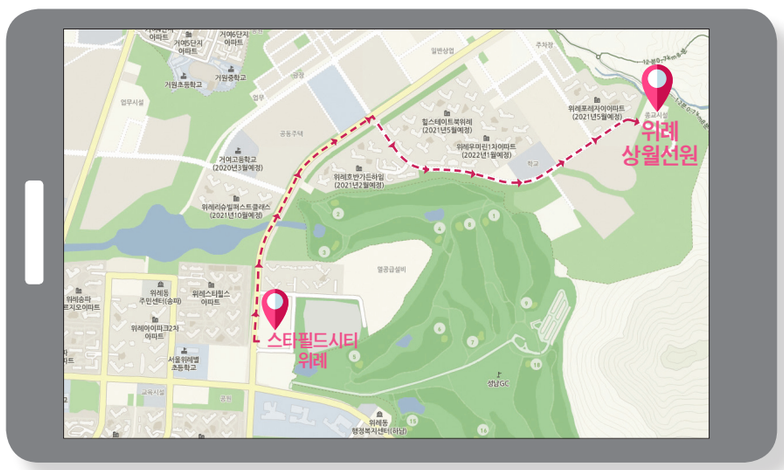
혜일 스님이 외호 담당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강진 백련사 주지시절 직접 무문관을 짓고, 정진하면서 대중들을 외호해 본 경험 때문이기도 하다. 밥을 지어 나르고, 무문관 수행대중들의 손발이 돼 봤기에 수행대중의 애로점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렇기에 위례천막결사에 앞서 스님이 준비하고 챙겨야 할 것도 많다.

스님은 “위례천막결사는 사찰이 아닌 곳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일반선원에서 외호하는 것보다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며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를 대비해야 하고, 추운 날씨에 하루 한 끼만으로 정진해야 하는 만큼 대중스님들의 건강을 위해 균형 잡힌 공양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결사기간 동안 매일 오전 봉국사에서 도시락을 준비해 대중스님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상월선원 대중스님들과 함께 기도 정진하겠다는 스님과 신도들이 늘면서 이들을 위한 기도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스님의 몫이다. 그러나 상월선원이 들어서는 위례신도시 종교용지에는 제반시설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다행히 서울 봉은사가 봉축기간 동안 사용하는 장엄물 창고로 대형 가건물을 짓기로 하면서 그곳을 빌려 임시법당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90평 규모의 임시법당은 3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임시법당에서는 조석 예불과 함께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정기 기도법회가 열릴 예정이다.

혜일 스님은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하며 9명 스님들이 목숨 건 정진을 하고, 그 스님들의 원력을 따라 신도들도 함께 기도 정진하는 위례천막결사는 현대한국불교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뜻깊은 불사”라며 “모든 결사 대중들의 기도원력이 꼭 성취될 수 있도록 외호대중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위례 상월선원 가는 길

위례신도시 종교용지에 건립될 상월선원은 북위례 택지개발사업으로 대중교통이 운영되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다.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내비게이션에서 ‘스타필드시티 위례’를 목적지로 설정한 뒤, 스타필드시티 위례에서 지도에서처럼 북위례 아파트 건립 공사 현장을 따라 상월선원으로 갈 수 있다. ‘스타필드시티 위례’에서 상월선원은 1.5km가량 떨어져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하철 8호선 장지역에서 31번 버스로 환승해 ‘스타필드시티 위례’에서 하차한 뒤 도보로 이동하면 된다. 20여분이 소요된다.